

호우 피해복구 행정력 집중

정현을 익산시장, 코로나19 방역·재난대응 철저 당부 신규사업 발굴·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공직자상 주문

정현을 시장이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안과제를 점검했다.

정 시장은 10일 북부청사 다목적강당에서 국·소·단·장, 부서장, 읍면동장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지역 피해와 대처상황부터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의 피해장제와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12시 기준 익산지역에 접수된 호우피해 건수는 도로침수 65건과 하수역류 60건, 주택·상가 침수 등 모두 226건이다.

이어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 축산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추진상황 등 10가지 미래농정국 주요 성과와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도심권 악취발생 원인 및 대응 도시공원 조성 등 26가지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 시장은 북부청사가 개청함에 따라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정국 업무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연한 사고 색다른 시각으로 업무에 접근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요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시설에 코로나19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없도록 사전 조치사항과 대응 계획 점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시장이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안과제를 점검했다.



8일 오전 강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된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도심 곳곳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주민을 격려했다.

“폭우... 시민안전 최우선”

강임준 군산시장-신영대 의원, 침수현장 찾아 주민 격려

강임준 군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군산시민의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강 시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실에서 지난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날 오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장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군산에는 지난 8일부터 지속된 장마로 8일 153.8mm(최대 212.5mm)의 비가 왔으며 9일까지 총 337.6mm의 강수를 기록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오전 7시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7일 오전 10시 30분 호우경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과 소 및 읍·면·동 공무원의 1/3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명시하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특별지시했다. 특히 8일 오전에 집중된 강우(시간 최대 강우량 72mm/h)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같이 도심 곳곳의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주민을 격려했으며 앞으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과 국회가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전에는 육산 개발행위 용역부회관 장 시작으로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을 위로했으며, 경포천 배수펌프장을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취했다. 또 강 시장은 오후에는 옥서면 하계지역과 남수리지역 침수지역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제방 일부를 허물어서라도 침수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사면붕괴 현상 등을 방호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철저 및 신속한 피해복구 대응을 지시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한국판 뉴딜 선제적 대응

전문가특강·자문단 정책토론

군산시가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정책자문단 6개분과 위원장과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주요사업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

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군산시 대응전략 마련과 군산형 사업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국가 정책연구 전문가인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진행했으며,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상생형일지리를 통한 미래자동차 기반, 고군산군도의 청정 관광 인프라 등 군산시의 강점을 살린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자문

단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1차 간담회 이후 각 분과별 릴레이 토론회를 거쳐 발굴된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장의발표에 이어 상호 보완의견 제시 및 지역주도형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지역 핵심정책 발굴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수산물시장 ‘드라이브스루’ 특판... 14~16일

군산시가 8월 황금연휴 기간동안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합인행사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드라이브스루 합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벤트 행사로 8월 황금연휴 기간동안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기간동안 20~3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참조기, 박대, 대하, 소라, 우럭 등 다양한 군산의 대표수산물

구매할 수 있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하고,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주관하며, 디싱크(주)가 행사는 대행한다.

특히 판매촉진과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 건조기, 안보의자, TV 등 다양한 가전과 생필품 등 풍성한 경품 역시 마련되었으며, 인스타그램 인증 행사를 통해 당첨될 경우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기획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한가지 수령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하수찌꺼기 감량화공사’ 악취 차단 팔건어

익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하수찌꺼기 감량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10일 사업장 내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탈취기 1대와 탈취배관을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중인 분뇨부입동과 임시

탈수기동에 탈취제 살포기와 250㎓/min 용량의 고성능 악액세정식 탈취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악취 흡입배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의 악취를 포집하고 있다.

또한 임시탈수기동의 악취가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에어커튼과 셔터

를 설치해 밀폐시켰으며 분뇨부입동 저류조 교반기도 기존 방식에서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기계식 교반기로 교체하여 악취발생량을 줄였다. 기존 탈수기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방을 최소화했으며 유독가스로 인한 작업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폭서기 전에 철거공사를 완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